

1) 사상의 전변과 채용의 윤리

가) 마오 사상의 일반적 특징?

• 실사구시적 성격

-전변하는 상황의 성격을 인식하여 상황을 변화시키는 실천을 강조한다. =>실사구시의 정신

-독자적 생각이기도 하지만, 집단지성이 산물이며

-과학적: 객관적 인식을 토대로 혁명의 임무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적 특수성; 반봉건 반식민 상태->신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무산 계급이 혁명을

-주도, 그러나 민족 자본을 살리고 토지 재분배를 시행하는 것.

• 주의주의의 영향

49년 신민주주의론에 기초하여 공동강령을 제정, 그러나 5년 후 인민공화국 헌법이 반포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이 선포된다. 민족 자본과 부농 및 신민주주의 옹호자를 청산. 이들은 계급투쟁의 대상이 된다. 이는 종래의 합리적 생각을 뒤집는 것이다.

혁명의 성질이 실사구시가 아니라, 먼저 주관에 의해 제시되었다. 즉 생산 관계를 통해 생산력을 해방하여 조속한 산업화를 추진하자는 레닌주의적 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가져온 관료주의와 특권층의 형성에 저항하는 것.

• 의지주의적 부단혁명론과 결합한 좌경노선과 실사구시에서 나온 신민주주의 노선의 갈등

1967 문화대혁명; “협오가 행동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숭고한 혁명 이념에도 불구하고, 민중 스스로의 해방감에서 오는 기쁨이 표출되거나 민중적 문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진정한 혁명이 될 수 없다.”(155)

나) 시기 구분

세 가지 시기

1911-1920 학습과 편력의 시기, 청년기

1921-1949초, 중국적 혁명사상 형성기

1950-문화혁명 종결시기 좌경 급진혁명 시기

• 모리스 마이스너 <마르크스주의, 마오주의 그리고 유토피아주의>(1982)에서

혁명 시기 그의 사상은 강력한 유토피아 의식, 군중 노선으로 나타난 인민주의 경향 및 의지주의 요소를 가진다고 보며, 문화대혁명도 그 연장 선상에서 고찰.

• 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6차 회의 등소평의 결의문
문화혁명은 좌경 착오, 그러나 마오의 위대한 공적을 찬양
주관의지의 강조->인민공사 정책이 나왔다.

마오의 살아 있는 영혼은 실사구시, 군중노선, 독립자주이다.

• 이규성: “개인들의 자발적 민중연합과 당의 의식적 독재를 결합하고 조화시키는 것을 당의
임무로 보았다.” 그러나 의지주의가 실사구시에서 풀려나오자, 좌경 착오가 드러났다.

다) 마오에 대한 이규성의 관점

-“생성 운동해 가는 세계를 전적으로 긍정하면서 의지적 행동을 통해 기꺼이 새로운 무엇을 경
험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는 기이한 느낌을 준다. 생성의 철학과 사회적 실천을 통일하는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160)

-바닷가에 춤추는 니체적 초인

자유로운 파괴성과 무심한 잔혹성을 향유하는 손오공

장자나 선종의 호연한 기상과 정치적 실천의 의지를 기묘하게 연결하여 옹혼한 기운을 발산한
다.

-일반적으로 마오는 마르크스주의의 중국적 변형이며 유토피아적, 인민주의적 사고가 특징이라
고 파악된다. 그런데 개혁개방이후 청년기 관념론 사상이 배경이 되었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이규성은 후자의 관점이 흥미롭다고 본다.

“초기 학습한 전통적 관념이 중국적 변용과 결합되었다.”(164쪽)

-그런데 내전과 항일전에서 독재와 민주 사이에 모순이 드러나지 않았다. 1949년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관료제, 특권층이 형성되자, 인민주의적 대중노선을 작동시킨다. 그것이 곧 문화혁명
이다. 그러나 당위 지위와 자신의 지위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으로 정당화했다. (165쪽)

“인민의 자유를 위한 마오의 계속 혁명에는 파리코민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있다. 그는 당 체
제를 파괴하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당의 의식적 영도의 위치를 폐기할 수는
없었다. 이 모호성에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자학과 학대의 심리가 도덕적 경건주의와 함께
일반화되었으며, 일인 우상화라는 정치적 권력 관계가 확산되었다.”(166)

-그의 군중노선은 민중이 영도자에 의해 동원되는 객체

% 문화혁명에 대한 평가? 주의주의(사회주의, 부단혁명론, 유토피아)의 산물인가 아니면 대중노선의 결과인가?(특권층 타도, 국가 파괴) 아니면 민중이 영도자에 의해 동원된 것인가?

1부 청년기 사상

2) 파울젠의 우주적 대아론

마오의 <윤리학 비주>1917-1918,

이는 파울젠의 <윤리학 체계>1889 가운데 활력론에 대한 노트

카나에 요시마루가 편집, 채원배가 번역, 양창제가 수신 교재로 사용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실천론에 기초

가치의 직관, 실천적 지혜, 개인의 주체성, 현실개조, 목적 실현, 신체와 의지의 단련

<차이점>

-개인적 자아의 공감적 확대가 중요.

파울젠은 개인이 국가 유기체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본 반면

마오는 국가는 개인들의 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단체에는 의지가 없다 단체가 의지를 갖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집합할 때뿐이다.”(윤리학 비주)

여기서 자아의 확대가 필요.

목자의 겸애설은 이타주의가 아니라,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천하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편화하는 것.

“내가 곧 우주다. 나를 제거하면 우주는 없다. 각각의 자아가 집합하여 우주가 된다.”(윤리학 비주)

-역사의 이념; 대동의 비역사성

파울젠 역사는 죄악이 언제나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도덕계의 위인이 나온다.

마오; 불평등, 부자유, 대전쟁은 당연히 천지가 끝나도록 길이 끊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역사는 부단한 투쟁의 세계, 치와 란이 교체. 대동은 역사의 저 너머에 설정, 유토피아적 이념이다.

3) 양창제의 영향

스승 양창제를 통해 중국변의 이학을 학습

가) 중국변의 이학

-주희 사상->왕부지의 기철학->중국변의 이학

• 체용합일적 세계관

-인식의 목표는 수많은 다양성을 포함하는 현상세계를 태극이라는 본체에 대한 통찰 안에 포괄하는 절대적 인식. 인식을 점진적으로 확대

-전체 세계는 무한한 본체인 생명 원리와 이것의 발용에 의해 전개되는 현상계의 유기적 종합 체계, 이일분수,

현상은 과학의 세계이고 본체는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다.

하나의 근본, 대본대원, 우주를 관통하는 원칙,

“일체의 현상은 이 대원칙에서 생성되니, 침묵 속에서 이 대원칙을 통찰해야 한다.”(논어 유초)

“모든 천지만물의 이치들이 태극이다.”(철학상 각종이론지약)

• 주의주의

주희는 정적주의적 내성에 지우쳤으나, 호상학을 계승한 왕부지는 역동적 성격을 부여[그러므로 중국변의 행동주의가 나온다?]

자아 실현, 강력한 주체성 수립이 필요하다.

=>인격 유심론; 절대적 유심론과 자연주의적 유물론의 지우침을 극복

=>발현과 정성의 철학,

나) 마오에 미친 영향

마오:

- “발현이 곧 본체이고 본체가 곧 발현이다.” (여금희에 보내는 편지)

- “이치에 대하여 궁구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이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윤리학 비주)

“안으로 성찰하는 지혜가 없고 밖으로는 사물을 관찰하는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여금희에 보내는 편지, 1917)

-인심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학적 주체성을 갖춘 지식인의 강력한 힘에 의해 가능하다.

“천하의 마음이 모두 움직이면 천하의 일에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는가”(여금희 편지, 1917)

-공리적 목적의식과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선택

“사회의 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로서의 윤리적 합목적성을 강조하는 파울젠의 영향”(177쪽)

-자아 확대

“전변하는 세계를 거대한 자아의 주재 안에서 변화해가는 장관으로 보는 자아존귀의 관점은 후기 사상을 관통한다.”(179쪽)

일상의 자아가 개방적으로 확대하여 사물과 자아가 일치하게 된다.

“타인은 나의 동포이며 사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철학상각종이론지략, 1914)

寬和지기를 갖춘 “심성은 우주와 화목하고 타인과 화해하는 정성이다”

다) 평가

-주희의 전체 대용이 봉건제도의 형이상학적 원천이 되었다면, 양창제와 마오의 전체 대용은 봉건 잔재의 극복의 틀로 전환된다.

-대아적 개인주의; 특수성이 억압된 현실을 개조. 무정부주의적 인민주의에 관심을 갖게 한다. 순결한 인민적 자아를 지식인 집단 위에 세움으로써 전문 지식인의 인성 개조의 원칙으로 삼았다.

-인민주의자로서 마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전환하면서 혁명가의 주도적 의식성을 우위에 놓는다. 이제 인민은 교사에서 대아의 제자가 된다. 그 결과 대아주의 소수의 정예들이 다수의 민중을 대변한다는 대표주의와 결합된다.

4) 마음의 힘과 민중

엄복의 천연론의 영향

1917 <마음의 힘>

-역사는 신흥성현과 마도유맹의 투쟁사.

-중국은 대내적으로 무도한 권력자가 장악, 밖으로는 강도들이 침략한다.

-민중의 사유와 심력이 강건해지는 것이 지름길

-의지를 강조한다. 즉 민중을 강성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의 심력을 강성하게 하는 것.

-자연사의 전개를 심력의 전개로 본다.

우주와 일치한 인간의 심력은 우주적 소통의 원리와 하나가 되어 만유와 통하고 사회내 불평등의 예속을 돌파하는 힘을 기른다.(207쪽)

7)민중연합론

1919년 상강 평론에 실린 <민중연합론> 3편

민중연합론 1

-강권자의 연합과 민중 대연합

프랑스 혁명의 예

민중연합론 2

-민중 연합= 소연합

인민공사

귀족이나 자본가의 연합은 지식, 금전, 무력에 의한 연합
대연합은 반대 세력의 방법[즉 연합]을 역으로 배워 적용해야 한다.

2부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

5장 생성과 중첩적 모순

1937 양명에 대해 승리, 1942-44 정풍운동을 거쳐 영도권을 확립

1937 모순론, 실천론, 1938 논지구전, 1940 신민주주의

교조주의를 거부하고 전변하는 상황에 적합한 실사구시를 강조하는 사상을 형성한다.

변증법적 논리를 사고의 형식으로 삼고

혁명 이념과 병가적 실용이성을 결합한 형태의 실천적 정치학,

일종의 윤리 정치적 技術이다.

% 마오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는 그의 농촌 근거지론, 게릴라전, 항일전, 좌우합작, 신민주주의론 등을 분석하는데, 독특하게도 철학적 저서 모순론, 실천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오 속에서 새로운 철학을 찾으려 했던 알튀세와 유사

마오의 <모순론>

-대립적 모순이 생성의 존재론적 원리다.

-모순적 관계들의 구조와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①보편성과 특수성,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

현재의 형세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관계에 대한 인식이 모순 해결의 실천적 단서를 제공한다.
생성 중에 있는 관계들의 체계를 모호한 어둠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준다.

=> 알튀세르의 중층 결정론에 영향을 줌, 이 개념을 통해 헤겔적 변증법에서 마르크스의 변증법으로 전환. 구조의 복합체가 역사적으로 변동해 나간다.

②모순의 두 측면,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균형, 힘의 증감에 따라 주요 측면/부차적 측면이 변화
측 형세의 변화. (모순의 상호 전화의 법칙)

안정과 조화는 일시적, 대립의 투쟁이 절대적이다. 상대적인 것 속에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균형 속에 불균형이 있다.

③비적대적 모순과 적대적 모순

④“그의 사회 이상은 역사의 고난을 통해 도덕적으로 도야된 사람들이 맺는 평등한 유대가 실현된 세계 대동이다. 모순을 발견하고 인식하며 그 모순을 해결하는 실천적 참여의식은 유토피아적 대동 이념에 의해 이끌려간다.” 215

모순의 운동 과정은 무한히 연장되고 운동이 정지된 궁극적 이상 상태는 무한히 연기된다.

<인민 내부 모순론>(1957)

-문화대혁명을 예고하는 문건.

일반적으로

착취 계급과 그들의 국가는 소멸, 나머지 민족자본가와 노동자, 도시와 농촌, 각 계급 내부의 모순, 당과 지식인의 모순, 현재 경제적 여건과 인민의 요구의 모순은 토론과 설득, 자기비판을 통해 비적대적 방법으로 해결

그러나 마이스너의 정리에 따르면 이 문건은 혁명 이후의 모순에 관해 두 가지 테제를 주장한다.

①지도자와 인민 사이의 모순이 존재.

이는 당의 무오류설, 전위 조직 이론을 벗어나는 것.

②사회주의에서도 계급투쟁이 존재, 그러나 사상 투쟁의 성격

구체적 계급은 없으나

반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의된 관념적 계급이 존재

인민내부의 비적대적 모순이 적대적 모순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시비를 가리는 방식 대신 강제적 방법이 허용될 수 있다

=>이; 마오의 주장은 도덕적 공격을 동반하는 경직된 사상 결정론이다.

“마오는 인민의 평등주의적이고 반관료주의적인 목표에 동조할 수 있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요구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는 공감하지 않았다.”(241)

당시 상황;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헝가리 저항 운동, 대약진 운동의 실패.

내부 반동파 즉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고위 당권파의 위협적에 대한 독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

“추상적 자유와 추상적 민주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민주를 목적으로 간주하고 민주가 수단이라는 점을 승인하지 않는다. .. 민주는 근본적으로 경제 기초를 위해 기능하는 것이다. 자유도 그와 같다. 민주와 자유는 ... 모두가 역사적으로 발생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인민 내부에서 민주와 자유는 집중의 상대 개념이고 자유는 기울의 상대 개념이다. ... 그것들은 모순적이면서 통일적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측면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인민 내부에서는 자유가 없을 수 없지만 기울도 없을 수 없다. 민주가 없을 수 없지만 집중이 없을 수 없다.”(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6. 실사구시와 실천적 인식론

〈실천론〉 1937

소련식 모델을 거부, 교조주의를 극복하려면, 과학적 태도가 요구되었다. 실사구시는 곧 중국공산당의 자주성 확립의 근본원리가 되었다.

-진리의 기준은 실천에 있다.

-실천-이론-실천

“혁명의 이론과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혁명에 참가해야 한다. 모든 참된 지식은 직접적인 경험에 근원이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시대의 경험과 모순을 극복하는 실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었

다.

-실천을 통한 인간의 진리 인식은 영원히 완결되지 않는다.

7) 민중연합과 사회혁명

[마오의 이중성에 대해]

-파리코뮌에 대해

마르크스의 평가: 통일적 조직의 부재 때문에 정부군에 대한 신복한 괴멸작전을 전개하지 못한 것, 파리 금융은행을 장악하여 부르주아의 재정 능력을 마비시키지 못한 것, 농민과의 연대가 없었다는 것 등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인의 자발성에 지도 조직의 의식적 주동성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착상했다.

마오

“파리코뮌이 연 것은 광명의 꽃이고 러시아 혁명이 맺은 것은 행복한 열매이다. 러시아 혁명은 파리코뮌의 계승자다.”(기념 파리 공사적 주요의의, 1926)

초기: 민중연합을 강조

〈호남농민운동고찰 보고서〉(1927)

-농회는 지주 권력을 전복하는 조직.

-지주권력 외 4개의 권력을 전복해야 한다. 즉 정권, 족권, 신권, 부권.

-농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서 인민의 혁명성을 인지한다.

-문화혁명은 민주주의 요구가 분출된 것.

8) 독재론

1949 〈인민민주독재를 논함〉

그러한 것들의 소멸을 촉진하는 조건을 창조하고자 분투노력해야 한다.

프로 독재는 본래 소수 억압자에 대한 억압은 진정한 자유 공동체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
그러나 파리코뮌의 해방정신과 위로부터의 합리적 지도력을 결합한 것이기에, 민중의 자발성이 정예분자의 합리성에 종속될 가능성을 지닌다.

마오의 프로 독재= 인민의 자발성과 영도자의 초월적 내재론을 결합.

인민민주주의의 모순

a. 정치적 모순: 지도성과 민중성 사이의 대립

문화 혁명 과정에서 코민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지했다가 결국 무정부주의로 비난

b. 이상과 현실의 모순:

반봉건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

생산관계의 변화가 생산력을 고양시킨다는 것을 전제.

그러나 실패

그의 사후 전문 테크노라트가 우위를 점하는 체제가 들어섰다.

c. 윤리적 위기의식

기존의 민주주의는 자산계급 민주주의->민주주의가 모든 계급에 적용된다는 것을 간과

신민주주의를 위로부터 실행하는 정예가 지해가 없고 권력을 추구하며 부도덕하다면 민주주의는 실패. 그런데 도덕은 개인의 환경이나 능력 및 선택이라는 유연성에 맡겨져 있다.

문화대혁명: 인민공사의 실패, 53년 이후 당권파의 자본주의 정책을 타도, 사회주의화를 위해, 1966년 대중노선을 위로부터 가동시켜 문화혁명이 발생,

그러나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정치화와 도덕적 규율화에 사로잡히면서

당과 국가가 파괴될 위기가 오자 마오는 다시 당의 영도적 지위를 강조

9)결론

마오의 사상

-강렬한 유토피아적 구세의식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인민 속으로 가며 인민에게 묻고 인민에게서 배우는 인민주의적 도덕을 가진 마오는 불가능한 이상에 미쳐 편력의 길로 나아가는 돈키호테를 연상시킨다.

마오의 의지주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능가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 후진적 물질적 조건에 규정되어 그의 후계자들은 물질적 행복을 보장하는 생산력주의로 나간다. 평등한 자유의 이상이 기술 유토피아와 최대다수의 행복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현실적 이상주의는 돈키호테처럼 분명히 인간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매력을 갖고 있다. 마오의 낙천적 인생관이 그토록 희망과 절망이라는 역설을 일으킨 것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베르자예프

“자유는 무, 무근거, 비존재에 근거한다. 자유는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존재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은 단절과 분열, 심연과 역설이며 초월이다. 따라서 자유와 인격만이 존재한다. 존재에 대한 자유의 우월성은 존재에 대한 정신의 우월성이다. 존재는 정적이고 정신은 동적이다. 정신은 존재가 아니다.”(노예냐 자유냐), 272쪽

자유는 필연의 질서를 넘어선 실재 그 자체의 속성이자 인간의 근원적 조건이다. 그것은 근대 부르주아가 만든 것은 아니다.

&이규성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

인권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는->경제적 해방에의 요구로 발전.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부단혁명론, 영구혁명론으로 대체되었다. 정치적 자유를 부르주아의 진부한 가치로 폐기.

억압적 근대국가의 파괴 이후 트카초프의 수직적 조직을 계승

마오의 군중노선은 인민 자신의 자각적 자주성의 방향을 정치 경략가의 응집력으로 수렴하는 방식의 것이다. 여기서 인민의 철저한 민주주의적 해방의 요구는 무정부적 반혁명으로 비난받는다.

근원적 해방의 욕망이 있으며, 이것이 인생을 추동하는 힘, 제도적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며, 자유로운 공생의 공동체를 실현.

‘이규성 철학 연구회’ 단독방 발표 후기

■ 이병창, 2024년 12월 21일

어제 발표 중 이병태 선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윤리적 실천의 목표와 이를 실천하는 자아라는 두 측면을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마오 초기 사상에서 마오가 목표로 삼은 것은 민중의 복리가 실현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민중의 복리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역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것도 아닐 것이고, 유교의 사회적 이상 질서를 단순히 수용한 것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의 복리 자체는 당시 54운동 시절 유행하던 공리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그러나 마오는 민중의 복리를 단숨에 천으로 보고, 이를 인식하는 데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아를 기르는 도덕적 측면에서, 유교적 천인합일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천인합일은 양명학적 직관이나 양심 또는 자아를 초탈하는 불교나 장자의 자아론보다 성실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주희적 자아 개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규성 선생이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번의 이학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성실한 인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치에 대하여 궁구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앎이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윤리학 비주)

“안으로 성찰하는 지혜가 없고 밖으로는 사물을 관찰하는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여금희에 보내는 편지, 1917)

아래는 천인합일, 도덕적 자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타인은 나의 동포이며 사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철학상각종이론지략, 1914)

寬和지기를 갖춘 “심성은 우주와 화목하고 타인과 화해하는 정성이다”

어떻든 이규성 선생은 마오는 마침내 주희적 이상인 천인합일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바닷가에 춤추는 초인”, “자유로운 파괴성과 무심한 잔혹성을 향유하는 손오공” 등의 표현은 마오의 도덕적 자아가 지닌 웅혼한 기상을 보여주는 말로 보입니다.

생사에 관한 마오의 호매한 기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태풍이 바다를 휘말고 파도가 종횡으로 치솟으면 배에 탄 사람은 그것을 장쾌하다 할 것이다. 하물며 생사의 거대한 파도를 어찌 유독 장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윤리학 비주)

여기서 자아의 개방적 확대는, 공리주의적 자기 계산이라기보다, 천인합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3)

사실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리주의적 계산에 머물렀고, 레닌주의가 전위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이상주의화 하는데, 이규성 선생은 마오의 경우 유교적 자아 개념의 영향으로 도덕적 자아를 강조하는 마오주의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규성 선생이 마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런 마오의 유교적 도덕적 자아의 측면으로 보입니다. 이런 도덕적 자아, 천인합일적 자아가 마르크스주의가 제시한 합리적 과학, 실사구시를 통해 파악된 역사적 목표와 결합하면서 성공적 혁명을 이끌었으나, 이를 벗어나 역사적 목표가 주관적으로 제시되면서, 오히려 일종의 돈키호테가 되었다고 마오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문화대혁명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오를 유교적 성자로 보는 것은 변하지 않았고 따라서 마오를 야비한 권력자로 이해하는 관점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규성 선생은 마오에 대한 애정을 지니는데, 그것은 비록 돈키호테적이었더라도, 천인합일의 경지를 실천하려는 마오의 웅혼한 기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병태 선생의 문제제기로 이규성 선생의 마오에 대한 해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마오가 실제로 이런 유교적 도덕적 자아를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했다면, 동아시아의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단서를 마련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